

강원지역의 문학매체 고찰

—『두타문학』을 중심으로

남기택*

차례

1. 머리말
2. 문학매체의 주요 양상
3. 『두타문학』의 전사
4. 『두타문학』의 형성과 강원지역문학
5. 맺음말

1. 머리말

강원지역의 근현대문학장은 195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립, 전개된다. 동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매체의 양상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물론 해방 이전에도 강원지역문학의 전사라 할 문학활동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과 같은 '지역문학'의 내용과 형식, 혹은 의식적 지향을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지역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1980년대 이후에야 정립되기 시작하는 문학사적 맥락과도 연동된다고 하겠다. 지역문학은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본격화와 더불어 중앙 중심의 문단제도에 대한

* 강원대학교 교수

대타적 개념으로 조명되고 있다.

강원지역의 문학매체에 관한 통시적 고찰로는 서준섭,¹⁾ 엄창섭,²⁾ 양문규,³⁾ 전상국,⁴⁾ 남기택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단편적인 언급이나 사료 정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종합하자면 강원지역의 문학매체는 1950년대를 전후하여 동인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등 양대 문인단체의 기관지가 중심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동문학』(관동문학회), 『돌기와』(돌기와동인회), 『두타문학』(두타문학회), 『예백문학』(예백문학동인회) 등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동인지로서 40여년에 이르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문학매체의 종류를 편의상 동인지, 기관지, 문학잡지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대표적인 형태와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나아가 『두타문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두타문학』을 강원지역 문학매체의 대표적 형태로 예시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개별논문의 성격상 다양한 지역문학매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겠다. 따라서 구체적 분석을 위한 텍스트 선별을 시도하였다. 이때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소로서 강원지역문학의 특성,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매체적 전형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 형태는 동인지이다. 이때 『두타문학』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동인활동 중 가장 오랜 역사성을 지닌 매체 중 하나이다. 또한 개별 장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종합장르의 문학동인지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두타문학』은 강원지

-
- 1) 서준섭, 「강원도 근대문학 연구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11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2.
 - 2) 엄창섭, 「강원문학의 사적 고찰—영동지역의 현대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 3) 양문규, 「강원지역문학의 생성방식과 발현양상」, 『작가와사회』 2004년 가을호.
 - 4) 전상국, 「강원문학의 역사와 현황」,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룸, 2005.
 - 5) 줄고, 「강원지역문학과 매체의 사회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12.

역문학의 정체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문학매체로 판단되는바 본고에서는 초기 양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강원지역문학의 매체적 특징이 귀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문학적 정체성⁶⁾에 관한 하나의 입장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문학매체의 주요 양상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문학매체라 할 때 우선 동인지의 양상을 들 수 있다. 강원지역 최초의 동인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좁은문』(1948, 춘천), 『청포도』(1952, 강릉) 등이다. 『좁은문』 동인으로는 이재학, 김세한, 이형근, 신철근, 장운상, 유광열, 구혜영, 한옥수, 임혜자, 장동림, 장독, 장건 등이었다고 한다.⁷⁾ 『청포도』는 황금찬, 최인희, 김유진, 이인수, 함혜련 등이 활동한 시동인지이다.⁸⁾ 이들 활동은 전문 문인활동이라기보다는 불모지와 같은 지역문화의 현실 속에서 자생한 의욕적 문청 활동으로 보인다.

지역문단 형성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동인지로는 『관동문학』과 『두타문학』 등을 들 수 있다. '관동문학회'는 1959년 조직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강원지역문학을 이끄는 중요

6) 지역문학 연구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그 정체성 구명이라 하겠다. 그것이 없다면 '지역문학'이라는 개념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성 문제는 한국문학에 있어서 지역문학이라는 단위 설정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한편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역문학의 정체성은 그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실증되어야 하는 동시에 현재적 관점에서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 연구에 있어서 지역문학이라는 범주가 유의미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구성적 개념의 차원일 것이다.

7) 전상국, 앞의 글, 316쪽.

8) 전상국은 "1969년 첫 모임을 가진 뒤 1971년 1월에 발간된 『표현』 1집은 춘천은 물론 강원도 최초의 시동인지"(위의 글, 321쪽)라고 기록하는데, 이보다 앞서 비록 단명에 그쳤지만 강릉을 중심으로 한 시동인지 『청포도』의 존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인지 『관동문학』이 창간되는 것은 1988년에 이르러서이다.⁹⁾ 한편 '두타문학회'는 1969년에 결성되어 1970년에 창간호를 내고 40여년에 이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종합 장르의 동인지로는 '설악문우회'(1969)의 『갈피』(1970) 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닌 매체라 하겠다.¹⁰⁾

다음으로 강원지역문학장에서 활황을 보이는 매체는 각 문인단체의 기관지 형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문인협회의 기관지인 『강원문학』과 한국작가회의 기관지인 『강원작가』이다. 이 중 『강원문학』은 매체의 역사나 관련 문인의 규모면에서 단연 앞선다.

1961년 문총(文總)이 해체된 뒤 1962년 예총이 발족되면서 동년 2월 예총강원도지회 아래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부가 결성된다. 강원문협이 결성되면서 비로소 강원도 문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¹¹⁾ 이후 1971년 『강원문학』 1집이 "향토성과 한국성이 일치되는 보편적 가치를 얻어내는 일"¹²⁾에 주목함을 천명하며 발행, 이후 지역매체의 대명사로 기능하게 된다. 이 단체는 『강원문학』 이외에도 각 지부 단위에서 기관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바 강원지역문학의 실질적 매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¹³⁾ 오늘날 강원지역문학장은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각 동인 및 문인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문인협회 활동은 가장 중심된 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문인단체는 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라 하겠다. 2002년에야 창간호를 낸 『강원작가』는 문인협회 중심의 지역문단에 대한 균형과

9) 참고, 앞의 글, 211-212쪽 참조.

10) 기타 강원도내 동인 매체의 양상에 대해서는 위의 글, 214-216쪽 및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편, 『강원도문학단체의 역사 및 문인인명록』(중보판), 강원일보사, 1996, 67-139쪽 참조.

11) 전상국, 앞의 글, 318쪽.

12) 권두사, 『강원문학』 1집, 한국문인협회 강원지회, 1971.

13) 이들 지부의 기관지는 지역별 거점 동인회의 동인지를 승계하는 형태도 보인다. 지역별 문단을 이끌었던 동인들이 결국 문인협회의 활동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원문인협회 각 시군별 지부의 연혁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편, 앞의 책, 52-66쪽 참조.

전체 세력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작가』 역시 전문적인 문학활동의 면에서 보자면 아쉬운 면모를 드러낸다. 문학제도적 관점에서의 비전문성이 그것이다. 전문 편집위원회의 부재, 회원 원고에 대한 원고료 미지급 등이 단적인 예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에서 펴내는 『강원민족문학』 역시 동계의 성격과 양상을 보인다.

요컨대 양대 문인단체의 기관지는 현단계 강원지역문학의 매체적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매체의 활동 이전에 강원지역문학을 태동하고 견인해오고 있는 것은 각종 동인지 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대 기관지를 강원지역문학의 주류 매체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문학제도의 실정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대표되는 문학제도는 이들 양대 단체를 중심으로 기획,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들 매체는 산발적인 지역별 동인활동의 중심이자 강원지역문학을 이끄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¹⁴⁾

문인협회와 강원작가는 문학적 이데올로기를 달리 하는 한국의 대표적 문학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문단에서의 실제 내용을 보면 문학적 정체성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단적인 사례로 동해지역의 경우 문인협회 회원 중 상당수가 작가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문학적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리적 조건과 전문 문학활동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인다. 분명한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계급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신의 문학적 이념을 명확히 설정하되 지나치게 이분법적 대립을 강조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역문단의 실정이고 문화적 토대이리라 본다.

다음으로 전문 문예지 및 신문의 양상을 들 수 있다. 강원지역을 거점으로 한 전문 문예지의 양상은 그것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 관점에서 전문 편집위원 체제에 따른 기획과 청탁, 원고료 지급 등의 요소를 들 때 현단계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되는 전

14) 참고, 앞의 글, 213-214쪽.

문 문예지는 부재한다고 보아 무방하다.¹⁵⁾ 그런 만큼 이곳 지역은 앞서 거론한 동인지나 기관지 형태의 문학매체와 활동이 지배적이라 하겠다. 그 중 『동안(東岸)』의 발간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3호를 발행한 연간 무크지 형태의 이 잡지는 기존 문학매체와는 달리 전문 문예지를 표방하며 기획, 제작되고 있다. 발간 시기를 좁히고 매체적 전문성을 더함으로써 지역문단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한편 지역언론 역시 지역문학의 매체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강원 지역의 경우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그 대표적 형태라 하겠다. 초기 문단의 형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자면, 1945년 창간된 『강원일보』는 1958, 1959년 2년에 걸쳐 신춘학생문예작품을 공모한다. 이때 입상한 춘천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1959년 ‘봉의문학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춘천지역 최초의 동인활동으로 기록되고 있다.¹⁶⁾ 『강원도민일보』 역시 『강원일보』와의 균형과 견제를 목적으로 1992년 창간되어 현재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3. 『두타문학』의 전사

두타문학회는 1969년 ‘삼척문학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1960년대 초부터 존재해왔던 ‘동예문학회’, ‘죽서루아동문학회’, ‘불모지문

15) 이와 관련하여 『유심』, 『시와세계』 등의 잡지를 강원지역 사례로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해사상선양실천회에서 서울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유심』을 지역문예지로 볼 수는 없다. 강릉에서 발행되던 『시와세계』 역시 서울로 근거지를 이미 옮겼고, 지역에서 발간될 당시에도 그 면면을 보면 지역문예지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16) 전상국, 앞의 글, 318쪽. 이승훈, 전상국, 허남현, 유근, 유연선, 손명희, 김주경, 백혜자 등이 활동한 봉의문학회는 이후 ‘예맥문학회’로 개칭, 재결성된 뒤 동인지 『예맥문학』(1959)을 발간하게 된다.(같은 쪽)

학회' 등이 통합하여 창립된 것으로 기록된 바 있다.¹⁷⁾ 따라서 『두타문학』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매체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중에서도 실질적인 연관관계를 지닌 매체는 『동예(東藝)』(동예문학회)와 『불모지』(불모지문학회)로 파악된다. 우선 『동예』는 1961년 수기로 등사된 1집이 제작된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 '능금나무의 主人들'……末路
 <창작>(소설) 「象」……박종철
 <시>
 「밤의 소고」 외 1편……김영준
 「北」 외 1편……정일남
 「年輪」……이경국
 「日岌」 외 1편……김정남
 <수필> 「손짓」……情響
 <여운>¹⁸⁾
 회원명단

목차만을 두고 보자면 강원남부지역 최초의 동인지임에도 제법 장르별 구색을 갖춘 면모를 보인다. 활동한 회원은 위에 나타난 것처럼 김영준, 정일남, 박종철, 이경국, 김정남 등으로서 이들은 자칭 葛山(김영준), 末路(정일남), 蜻岩(박종철) 등의 필명을 사용하며 문학적 멋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우리는 文壇에 돌을 던지는 作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럴 힘도 없거니와 섯불리 돌을 던졌다가는 기관총이나 야포의 사격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아직 열매가 열리기에는 數年の 其間이 필요하다. 정

17) 『두타문학』 7집의 '두타문학동인회 약사'(31쪽) 등 참조. 이들에 대한 사료적 기록은 줄고, 「삼척지역문학의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6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12, 363-364쪽 참조.

18) 동인지를 내는 동인 각자의 소회를 비유적으로 기록한 잠문에 해당된다.

작 그 時期에 가서 능금나무의 主人들은 文壇에 이 열매를 던져볼 참이다. 그래서 맛과 향기와 生理를 沈滯된 文壇위에 풍겨보자는 것과 나아가서는 우리대로의 地方文壇을 世界의 水準에까지 끌어 올리자는데 終局的 目標이 있는 것이다.¹⁹⁾

정일남이 쓴 이 글은 “지방문단을 세계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자”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어조는 과장되어 있지만 세계성이라는 보편태를 실현하는 지역성의 구체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지역문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의만큼은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보인다.

『동예』 2집은 같은 해 11월에 제작되고, 1962년 5월에 3집이 간행된다. 이들의 활동은 그후 중단된다. 동인들의 이직과 군입대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활약했던 김영준, 박종철, 정일남 등은 강원영동 지역문학의 1세대로서 기억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불모지』는 『동예』의 뒤를 이어 1965년 간행되는데 1집만을 발간하고 만다. 동인으로는 김익하, 이종한, 최홍걸, 정연휘, 박학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不毛地 序章’……김익하
 <시>
 「正午 위에서」 외 2편……이종한
 「낭마 悲歌」 외 1편……최홍걸
 「님의 便紙」……김익하
 <수필> 「五月의 對話」……정연휘
 <소론> 「젊은 親友에게」……최홍걸

19) 정일남, 「능금나무의 주인들」(머리말), 『동예』 1집, 7쪽. 이하 동인지의 서지사항은 본문에서도 설명되는바 제호와 호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20) 1세대 문인들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는 줄고, 「삼척지역문학의 양상 고찰」, 앞의 글 참조.

<서간> 「窓門을 열다」……정연휘
 <小品> 「執念」……이종한
 <단편소설> 「下濕地」……최홍걸
 편집후기

이와 같이 동예문학회의 후배 세대로 보이는 문청들이 중심이 되어 『불모지』는 탄생하게 된다. 이 역시 이곳 지역문학장의 당대 여건으로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들은 지역문단 형성과 전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바 정연휘 시인은 현단계 지역문단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할진대 하나의 모임은 不毛地에서 播種하고 싶다는 엄청난 집념(?)에 서였다. 不毛地에서 어거리 豊年을 기약하기란 역지에 가까운 無謀한 짓이지만, 土質改養만 하면 알찬 한톨의 열매인들 어찌 結實치 않겠는가. 그러기 爲해선 文學的 土質改養이 不毛地의 課題이며, ‘나르시즘’의 大地에 竹筍을 기르는데 그 目的이 있다.²¹⁾

김익하가 작성한 이 글은 당대 지역문단의 현실을 ‘불모지’로 파악하면서,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동인활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강한 어조로 피력하고 있다.

삼척문화회는 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1969년 결성된다. 결성 당시의 동인으로는 김영준, 최홍걸, 정연휘, 김익하, 정일남, 박종철, 김종욱 등이 이름을 올린다.²²⁾ 동인지 1집은 1970년 4월 『삼척시단』이라는 제하로 발행되는데, 가장 먼저 이곳 지역 출신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김영기가 축사를 작성한다.

21) 김익하, 「불모지의 서장」, 『불모지』 1집, 2쪽.

22) 첫 동인지의 ‘회원주소록’에 따르면 기타 함영범, 이희돈, 심낙영, 최성희, 박자운, 김형화, 고성범, 김광용, 이종한 등의 명단이 보인다. 『삼척시단』 1집, 31쪽. 타자로 식자하여 등사된 이 동인지는 발행 겸 편집인 삼척문화회, 발행소 삼척문화원, 발행일 1970. 4. 26 등으로 서지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창조한다는 무상의 행위는 그러나 작품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숨겨진 생명의 의지와 보다높은 차원으로서의 갈등 그리고 초극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간의 차이, 이 세계와의 차이, 나아가서는 우주로 비상하는 관념의 편차를 개개인의 위기의식에서 장화(정화)시키는 경고자로서의 임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대를 건다면 아마 그 속에 진리를 모사할 뿐만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요청되는 것은 감정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 지식 위에 생명감을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²³⁾

이어서 이 글은 “삼척지방문학이면 당연히 강원도 지방문학인 것이고 한국문학인 것”이요 “그때 지방문학은 한국적이길 원하는 것이고 세계적 보편성을 띠우기를 원하는 것”²⁴⁾임을 강조한다.

동인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아직 등단하지 않은 문청들로서 문학적 열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열정과 공감을 통해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이(저희)들은 (……) 아직 습작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중에는 신춘문예를 거쳐 시인이 되신 정일남 씨 같은 분들도 계심을 알려드립니다”²⁵⁾와 같은 자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단』 1집에는 정일남(「어부사」, 「산울림」), 김영준(「개나리 피다」, 「무제·3」), 김익하(「학은 典刑에 날다」), 정연휘(「기억·4」, 「무궁화 동산」), 함영범(「애뜻한 가슴」, 「이대로 간다해도」), 고성범(「흑애」, 「해당화」), 김경희(「파문」, 「이삭」), 이종한(「거리의 푸라타나스」), 김광용(「이사」, 「다리」), 박자운(「하늘」), 최홍걸(「우기」, 「어항속 언어」), 이회돈(「그 우연의 날을」, 「이슬 찾는 아침」) 등이 수록된다. 동인 시화전을 계획하고 자료집 겸 제작된 것임을 ‘편집후기’를 통해 알 수 있다.²⁶⁾ 이들 작품은 제목에서

23) 김영기, 「문을 여는 첫소리」, 『삼척시단』 1집, 2쪽. 괄호는 인용자.

24) 위의 글, 3쪽.

25) 김영준, 「작품집을 내면서」, 『삼척시단』 1집, 4쪽.

26) “삼척문화회 동인 시화전(1970. 4. 26-30. 태백다방)을 계기로 이 작품집이 급히

도 드러나는 것처럼 다소 과잉된 감정을 절제된 수사 없이 장황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습작기의 전형적 형태를 보인다. 소재나 주제 역시 구체적인 체험에 바탕한 것보다는 추상적이고 보편 서정에 기댄 감상주의 경향이 지배적이다.

밤 불빛은 잠겼네
밤 바다의 불빛은
우리 형들 서러운 불빛.

우리가 이 어촌에서
길들은 설음이사
억대를 이어온 저 붉은 불빛 아닌가.

배 만들어
거기 한 생활 실어 담고
어두운 밤 불빛도 실어 담고
배 멀미 다왔고 난 질긴 목숨들

고기잡이에 길든 형들
출입하는 길은 하늘 닿은 물길.

(.....)

우리 어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해송 허리에 열리는 아침이
해당화 꽃 한송이로
온 바다를 붉히네.

—정일남, 「어부사」 부분²⁷⁾

꾸며졌는데 동인 여러분 시화전이 끝나는 날 합평회를 겸해 웃어보고 싶습니다.”
(정연희의 편집후기, 『삼척시단』 1집, 3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작품은 지역적 삶의 환경과 역사가 농축된 시적 묘사로서 일정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 어촌”의 삶에 담긴 애환을 담화 주체의 변화를 통해 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감정을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대상에 이입 전이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전문적인 문학수업이 어려웠을 지역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이처럼 자생적이고 의식적인 문학적 지향을 떠나갔던 것은 『두타문학』은 물론 강원지역문학사의 획기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4. 『두타문학』의 형성과 강원지역문학

『두타문학』 전신인 삼척문학회의 동인지 2집은 동년(1970) 10월 『삼척문학』이라 제호를 변경, 자필 프린트판으로 발행된다. 역시 ‘제3회 광공제’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제작되긴 하였으나 같은 해에 두 권의 동인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당시로서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삼척문학』 2집에는 1집에 수록된 동인들 외에 박운(「진실, 「사랑이 싹터오는 계절에서」), 윤성우(「무지개, 「낙엽」), 이종희(「여행의 노래, 「고독한 신앙」), 홍말순(「빛바랜 사랑, 「외로움의 시간에」), 윤경희(「가을의 창을 열자, 「구름」), 박종철(「불꽃」) 등의 작품이 추가된다. 또한 이란희(「벚에게 띄우려는 글」), 정연희(「어떤 분노와 슬픔의 충격」) 등의 수필과 김익하(「花紋城」)의 소설이 새로운 장르로 포함되고 있다. 편집후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위주에서 종합지로 상승한 셈”²⁷⁾인 면모는 남다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소설 「화문성」은 “나이/ 열 여덟/ 無涯한 草原에/ 城이 하나// 門은/ 終日/ 噴水로 열리고// 여러개 부푼/ 表皮마다/ 脫紙緋 소리”라는 제사로 시작된다. 이 작품은 제사 그대로 ‘나’와 어린 소녀 ‘계원’의 만남과 사별을

27) 『삼척시단』 1집, 5쪽.

28) 김영준의 편집후기, 『삼척문학』 2집, 67쪽.

그린 소설이다. '나'는 친구가 개원한 해촌 병원을 방문하던 중 폐병 환자로 입원해있던 '계원'을 우연히 만났고, 근 일년 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병세가 악화된 '계원'은 '나'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는다.

이윽고 계원은 갔다. 인간이기에 인간품에 안겨 종말을 기다렸단 말인가.
 나는 이미 싸느랴게 식은 계원의 시체를 안고 휘청 일어섰다.
 그리고 병원 반대편인 철길을 바라보며 갈대밭으로 향했다.
 무더기 바람에 꽃잎이 병약한 계원의 얼굴 위로 떨어졌고 그 떨어진 꽃잎
 위로 석양 마무리로 던진 노을이 아슬하게 불타 지고 있었다.
 것처럼 질던 아카시아 향기마저 일몰의 순간으로 사라지고 없었다.²⁹⁾

통속적인 연애소설의 줄거리와 문체를 지닌 이 작품을 통해 소설의 긴밀한 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인생의 깨달음이나 깊이를 '꽃잎'을 통해 상징하는 서사구조는 통속적 이야기라는 외연을 확장시키는 소설적 기제로 보인다. 소설 속의 '나'와 '계원'을 잇는 도구가 아카시아 숲길에서의 '잎따기 놀이'였고, 해변에서의 개화가 늦은 이유를 조만(早晚)의 이치로 설명하는 것은 어린 소녀였다. 늘 기다리던 사람과 함께 추억의 장소인 아카시아 숲에서 생을 마감한 소녀의 운명은 자연이 지닌 낙차요 생의 꽃무늬(花紋城)임을 이 작품은 상징하고 있다.

『삼척문학』 3집은 1971년 2월, 역시 자필 프린트판으로 제작된다. 여기에는 정일남이 쓴 「동인서약서」와 평론가 김영기의 특별기고문 「두타산의 인상」을 필두로 시(김영준, 김형화, 정일남, 이희돈, 함영범, 고성범, 윤경희, 박자운, 윤성우), 수필(박종철), 단편소설(김익하) 등이 수록된다. 그 밖에 특집으로 '시 특집·정연휘 편'이 마련되어 신작시 9편이 실리는 등 동인지의 체제를 규모 있게 갖추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1971년 10월에 간행되는 『삼척문학』 4집은 비로소 활자본의 형태를 지닌다. 5집은 공백기를 거쳐 1977년에야 발행되는데, 여기에는 평론가 김영

29) 김익하, 「화문성」, 『삼척문학』 2집, 65-66쪽.

기와의 대담을 전제한 「삼척문학·기타」가 주목된다. 이 글은 동인지가 지역문단에서 지닌 위상, 문제점, 그리고 지역문학의 방향성과 기존 동인들의 전반적 작품세계에 대한 총평을 포함하고 있다.

『삼척문학』은 도내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춘천의 『예맥문학』, 『삼악시』, 원주의 『북원문학』, 강릉의 『조약돌』, 평창의 『돌기』와 등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³⁰⁾

지방문학을 중앙문단과의 종속관계로 파악해서는 안됩니다. 대등한 관계의 정립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의 체험을 문학적 모티브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곧 향토성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향토성은 자랑스러운 것으로 변용됩니다. 태백산맥의 역센 기상, 동해의 푸르름, 태백탄전의 검은 바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역사가 바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향토에 대한 창조적 방향의 제시로 공헌해야 합니다.³¹⁾

두타문학회의 『두타문학』은 1979년에 속간된 6집부터 지금의 동인명과 제호로 변경된다. 지면도 훨씬 풍요로워져서 시, 수필, 단편소설 이외에 콩트, 동화 장르를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익하의 중편 「삼백 예순한 개의 못」이 수록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별기고 형식으로 실린 김영기의 「두타문학론」은 이승휴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강원영동지역의 문학적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에 대한 상징으로 '두타문학'이라는 표제를 내세우고 있다.

(……) 따지고 보면 두타·죽서의 이름은 이승휴와 연결되어 있고 고려 중기에 발흥한 민족서사시 「제왕운기」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타문학'은 향토문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학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며 한국적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것의 모든 것을 말하며 한국문학을 창조적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³²⁾

30) 김영기·김형화, 「삼척문학·기타」(대담), 『삼척문학』 5집, 12쪽.

31) 위의 글, 13쪽.

이를 통해 두타문학회로의 개명 의도와 지향을 알 수 있다. 기존 '삼척 문학'이 환기하는 국지적 의미를 벗어나 지역색을 드러내면서도 보편성을 상징하는 표제로서 '두타문학'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동인 대표 역시 "두타문학으로 改題하면서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설계하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문학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자랑으로 알며 진취적이고 행동적인 정진을 다짐"³²⁾함으로써 위의 과정과 의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문학기론적인 논의는 김영기의 글로부터 부각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통해 두타문학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김영기를 비롯한 일세대 문인들의 입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역시 추론할 수 있다.

이 별관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별관에서 누가 목숨을 뿌려놓고
 무슨 理由 하나로
 아주 버리지를 못하고
 바닷바람에 귀를 적시면서
 서로 다른 바다를
 이 별관에 심어 왔는가.

내 고향은 아니지만
 이 질곡의 땅 어디에
 오촌 숙모는 살아가고
 北坪 땅 어디에 가 보아도
 버릴 것 하나 없는 공간,
 조금씩 소금 섞인 바람 불어오지만
 日本 사람이 세워놓은 제철소만이
 붉게 비애가 녹슬어 있다.

32) 김영기, 「두타문학론」, 『두타문학』 6집, 12쪽.

33) 김영준, 「또 다시 신념을」(머리말), 『두타문학』 6집, 6쪽.

누가 서쪽으로 멀리
 南韓으로 두타산을 달리게 하고
 누가 이 단조로운 해안선을
 北韓으로 멀리 치달리게 하는가.

—정일남, 「北坪」 전문³⁴⁾

6집에 실린 이 작품은 초기로부터 지속된 정일남 시가 지역적 삶의 형상화로써 이룬 하나의 지평을 보여준다. 동해시 북평동 일원의 지형과 역사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지역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빚어지는 문학지리적 공간성을 창출한다. ‘바닷바람’과 ‘별관’이라는 외형적 요소와 “질곡의 땅”과 “붉은 비애”의 내면적 삶이 남북을 아울러 반도의 그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북평’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적절히 형상화하고 있다.

한쪽박의 샘물을
 안으로 쌓아
 다시금 괴워올리는
 숨결을 듣는가
 魚缸은

스스로의 정맥을 뚫어
 진한 밤의 内部로
 이윽고 뿌려지는
 日月의 鮮血인가
 어항은

홍진의 두터운
 空間 사이를 헤엄쳐
 짧은 年輪의

34) 『두타문학』 6집, 14쪽.

부력을 시험하는가
魚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수척한 초침의
逆미를 보는가
魚缸은

—최홍걸, 『魚缸』 전문³⁵⁾

한편 위 작품은 사물에 대한 주지적이고도 즉물적인 묘사를 통해 ‘어항’의 존재론적 비의를 드러낸다.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탁월한 묘사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 작품을 포함하여 『두타문학』의 순수서정적 작품 경향에 대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어떤 유과나 사조에도 영향 받지 않고 독특한 예술성을 발휘하는 경우”³⁶⁾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물론 이는 지역문단의 방향에 대한 바람이 담긴 언급이겠지만, 위 최홍걸 식 서정은 그에 손색없는 자신만의 개성과 문체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두타문학』은 1983년 시화전 자료집 형태로 약식 발행한 7집을 거쳐 8집(1985)부터는 제대로 된 연간지 형식을 갖춘다. 이때부터는 완전한 자생력을 지니어 2009년 현재 32집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삼척문학』 시절부터 편집을 담당했던 시인 정연휘의 노력이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³⁷⁾

이처럼 『두타문학』은 전체적으로 시장르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소설,

35) 『두타문학』 6집, 23쪽.

36) 김영기·김형화, 앞의 글, 16쪽.

37) 동해와 삼척은 물론 강원지역문학의 주요 자료인 『두타문학』의 전모는 정연휘에 의해 생생히 보존되어 왔다. 『두타문학』의 전신이라 할 『동예』, 『불모지』 등의 동인지는 물론 『두타문학』 전권을 그는 소장하고 있다. 지역문학자료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전편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필자 역시 그에 빚진 바 지면을 빌려 사의를 표한다.

산문, 아동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전통적 리리시즘 경향을 위시하여 지역적 경험이나 이른바 향토문학의 양상이 주종을 이룬다. 이는 그대로 강원지역문학의 특성에 해당된다. 한편 지역문학의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구성적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두타문학』 및 강원지역문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학사적 방법과 미학적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지역문학론은 텍스트의 실증적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지역문학을 보는 미학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연구방법론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동반해야 한다. 창작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미적 판단 기준이 지닌 폭을 넓히고, 지역적 삶의 형상화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문학적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5.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강원지역의 매체적 양상 중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초기 『두타문학』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강원지역의 근현대문학장은 195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립되었으며, 동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매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관동문학』, 『돌기와』, 『두타문학』, 『예백문학』 등은 이 지역의 대표적 동인지라 하겠다.

기타 문학매체의 양상으로는 각 문인단체의 기관지 형태와 전문 문예지 및 신문의 양상을 들 수 있다. 『강원문학』과 『강원작가』, 『동안』 및 『강원일보』 등을 예시할 수 있겠다. 이들 매체는 각각 현단계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타문학』으로 본 강원영동지역의 문학활동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본고에서는 『두타문학』의 전사라 할 수 있는 『동예』와 『불모지』, 이어 『삼척시단』, 『삼척문단』으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초기 『두타문학』의 구성과 지향을 통해 강원영동지역문학장의 특성을 추론하였다.

이를 종합하자면 강원지역문학은 세부 지역별 동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매체적 양상을 지닌다. 또한 그 내용으로는 전통적 서정과 부분적이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이 강원지역문학의 정체성과 관련될 것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전유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의 삶에 바탕한 지역성의 전유야말로 지역문학이라는 범주적 정당성을 위한 필수적 자질이기에 때문이다.

『두타문학』의 문학적 양상은 강원영동지역은 물론 강원문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요소가 된다. 강원문학은 이러한 기존 양상을 계승함은 물론 보다 다양한 문학활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하리라 본다. 『두타문학』으로 본 기존 양상은 다소 일방적 흐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시낭송 및 시화전, 연간지 형태의 동인지 발간 등으로는 문학의 다양성을 실현하거나 한국문학을 선도하기 어렵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문학의 진정성과 소수성을 선취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학에 대한 학술적 조명 역시 기타 사료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실증적인 접근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 핵심어: 강원지역문학, 동인지, 지역성, 『두타문학』, 『동예』, 『불모지』

<참고 문헌>

- 강원문학대선집 발간위원회, 『강원문학대선집』, 금강출판사, 2005.
- 남기택, 「삼척지역문학의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6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12. : pp. 361-381.
- 남기택, 「강원지역문학과 매체의 사회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12. : pp. 203-226.
- 서준섭, 「강원도 근대문학 연구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11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2. : pp. 107-118.
- 서준섭, 「강원문학 활성화를 위해」, 『강원일보』 2005년 7월 26일.
- 서준섭·박민수·송준영, 「강원도 시단과 시를 말한다—지역성, 특이성, 보편성」, 『현대시』 2003년 8월호. : pp. 38-63.
- 신봉승,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향기』, 혜화당, 1993.
- 양문규, 「강원지역문학의 생성방식과 발현양상」, 『작가와사회』 2004년 가을호. : pp. 16-29.
- 엄창섭, 「강원문학의 사적 고찰—영동지역의 현대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 pp. 331-348.
- 전상국,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룸, 2005.
- 정연희, 『문학쪽에서 본 삼척』, 『실직문화』 1집, 삼척문화원, 1990.
-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편, 『강원도문학단체의 역사 및 문인인명록』(증보판), 강원일보사, 1996.

<Abstract>

A Study on Gangwon Regional Literature and *Duta Munhak*

Nam Gi-tae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Gangwon regional literature with *Duta Munhak*. Gangwon regional literature can be referred to as problematic objects that shared converging and diverging points in looking into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the media organization in literature. This thesis tries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in broad sense to their works based on the efforts to examine locality in various lights. Locality can be the strategic objective to which literature theory should pay attention in modern times.

Regional literature study is a method that sets the goal at discussion for a regional reorganization. The important materials as target of regional literature study is media such as magazines and organizations. The dominant media in Gangwon regional literature is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s.

Samcheok and Donghae regional literature started in earnest in the 1960s. The first literary journal *Dong-ye*, and other coterie, such as *Bulmoji*, *Jukseoru* came into existence in this period. The activities of these coterie were largely amateurish.

'Duta Literary Coterie' was established in 1969 as 'Samcheok Literary Coterie' and its collection of works, *Samcheok Sidan*, is the genuine starting point of Gangwon-Youngdong literature. It changed its title in 1978 and has been publishing its collection of works entitled *Duta Munhak*.

- Key words: Gangwon regional literature, literary coterie magazine, locality, *Duta Munhak*, *Dong-ye*, *Bulmoji*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5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